

3배는 더 설렘 '연애의 맛' 이 온다

오는 24일 TV조선 '연애의 맛 시즌3' 첫방송

윤정수 · 정준 · 강두 · 박진우 · 이재황, 라인업

3배는 더 설렘 '연애의 맛 시즌3'가 온다. 윤정수 정준 강두 박진우 이재황이 '연애의 맛 시즌3'에 전격 출격, '솔로 탈출'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오는 24일 오후 11시 처음 방송 될 TV조선 '연애의 맛 시즌3'는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꿈이었던 사랑과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 시즌 1과 시즌 2에 이어 3배는 더 강력해진 핑크빛 필름을 장착한 시즌 3를 예고, 설렘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애의 맛' 시즌 1에서는 이필모가 서수연과 실제 결혼에 성공하면서 아들까지 출산,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 확신을 안겨줬다. 시즌 2에서는 처음부터 남다른 달달함을 터트렸던 오창석과 이재은이 '아아 커플'이라는 애칭 속에 방송 8회 만에 공개 연애를 선언한 후 실제 커플로 발전, 여는 프로그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연애 맛집'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이와 관련 '연애의 맛' 시즌 3에서는 시즌 2의 달달함을 이어갈 이재황부터 '연애계 대표 노총각' 윤정수, 순박한 미소의 데뷔 29년 차 배우 정준, 그룹 더 자두 데뷔 후 배우로 전향한 강두, 데뷔 16년 차 '논스톱5'의 꽃미남 배우 박진우 등 기존 예능에서 볼 수 없던 반가운 얼굴들이 대거 합류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심쿵 장전 '연

애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애계 대표 노총각, 올해 48세 윤정수는 '진짜' 결혼을 위해 '생애 마지막 연애'에 도전한다. 파산의 아픔을 이겨낸 윤정수가 이제 남아있는 목표는 오직 결혼뿐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 이전 윤정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숙과 함께 약 2년여 간 가상 부부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바, 이번에는 가상 결혼이 아닌, 진짜 결혼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윤정수의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통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데뷔 29년차 배우 정준은 '맛있는 청춘' '목욕탕집 남자들' '사춘기' 등 수많은 작품에서 순박한 미소로 많은 여성들에게 설렘을 안겼던 '원조 국민 썸남'이다. 수줍게 지어보이는 미소와 달리, 정준은 '연애의 맛'에서 진정한 장남자다운 매력을 발산하며, 역대 최강 캐릭터로 등극할 전망이다. 특히 제작성도, 카메라도 보이지 않는 듯, 오로지 '사랑의 직진본능'을 팔가동시킨 정준의 운명적인 상대는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두는 2001년 혼성그룹 더 자두로 데뷔한 뒤 '잘가' '대화가 필요해' '감밥' 등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이후 배우로 전향, '공S' '심야식당' '완벽한 아내' '비켜라 운명아' 등에 출연했지만,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연애를 포기했던 상태. "난 연애할 자격이 없어"라고 한탄했던 강두가 '연애의 맛' 시즌 3에서는 웃음을



되찾고 연애의 '맛'을 맛볼 수 있을지 궁금증을 돋운다.

데뷔 16년 차임에도 전성기 때와 변함없는 동안 외모로 감탄을 자아내는, 원조 꽃미남 배우 박진우는 빈에서 1~2등을 도맡아하던, 공대 출신 모범생 임친아 오빠. 2004년 시트콤 '논스톱 5'와 영화 '어린 신부'에서 열연을 알리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박진우는 최근 '오늘부터 사랑해' '수상한 잠보' 등에서 활약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공부'와 '연기' 맛만 알던 박진우가 '연애'의 맛을 느끼기 위해 운명의 그녀를 찾아 나서면서, 수줍은 연애 현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시즌 2에서 10년 만의 소개팅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재황은 시즌 3에서도 유다솜과 올버른 '연애' 경로 찾기에 나선다. 단 두 번의 만남 동안 이재황과 유다솜은 길을 잃어버리고 차

키와 신발 분실하는 등 드라마틱한 사건사고를 겪었던 터. 하지만 평강공주만큼 똑부러진 유다솜으로 인해 한 달 만에 이재황의 연애 세포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 솔로 탈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제작진은 "윤정수를 비롯해 정준, 강두, 박진우, 그리고 이재황까지 오랜 만에 보지만, 여전히 혼자인 남자 출연자들이 어떤 리얼한 연애를 보여줄지 제작진 또한 기대가 크다"며 "솔로탈출의 각오를 다지며 등장한 솔로 5인방의 진정성 있는 연애의 모습을 '연애의 맛'에서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연애의 맛' 시즌 3는 당초 17일 첫 방송을 목표로 촬영에 나섰지만, 좀 더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 오는 24일로 첫 방송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애의 맛' 시즌 3는 오는 24일 오후 11시에 처음 방송된다.



영화 '말레피센트2', 안젤리나 졸리의 카리스마와 매력, 그리고 예상 가능한 전개

*영화의 주요 정보를 포함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 '말레피센트2' (감독 요아킴 뢰닝)는 2014년 개봉한 '말레피센트' (감독 로버트 스톰버그)의 속편이다. '말레피센트'는 동화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해 디즈니 역사상 가장 사악한 마녀였던 말레피센트를 주인공으로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풀어냈다. 색다른 시각이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달 초 언론배급사사회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말레피센트2'는 전작과 다름없이 안젤리나 졸리의 존재감과 매력에 상당 부분을 기대 작품이다. 말레피센트는 악녀의 '외모'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츄데레' 매력을 지닌 캐릭터. 인간적이라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다.

'말레피센트2'는 1편에서 소년였던 오로라(엘트 패닝 분)가 성장해 필립 왕자(헤리스 디킨슨 분)와 결혼을 약속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두 사람의 결합으로 인해 그간 반목했던 요정 나라 무어스와 인간 왕국 엘스테드는 화합의 미래를 꿈꾸게 된다.

언제나 평화보다 상대의 굴복을 끌어낼 강력한 힘을 원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 '말레피센트2'에서는 필립 왕자의 어머니 잉그리스 왕비(미셸 파이퍼 분)가 이 같은 욕망을 지닌 안타고니스트로 선택됐다. 잉그리스는

요정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으며 풀림에서 이들을 공격할 치명적인 무기 개발에 힘을 쏟는다.

'말레피센트'는 시점의 전복을 통해 사악한 마녀로만 여겨졌던 캐릭터의 입장에서 극을 끌어가는 신선한 시도로 호평 받았다. 2편인 '말레피센트2'에서는 1편의 신선함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말레피센트의 '내적 성장'을 다른 서사가 이를 위해 선택했다. 하지만 이런 전개는 다소 구태의연한 느낌을 준다.

타인의 오해 속에 '악인' 취급 받는 인물과 그런 그를 구원해주는 하나의 '외모'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츄데레' 매력을 지닌 캐릭터. 인간적이라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의 이야기는 '히어로물'에서 되풀이 되는 플롯이다. '말레피센트2'는 다채로운 캐릭터와 확장된 스케일로 평범한 이야기를 가려보려 시도했으나 결과물은 성공적이지 않다. '모성애'라는 주제 역시 평범하다.

남는 것은 안젤리나 졸리의 카리스마와 매력이다. 안젤리나 졸리는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찬 말레피센트의 내면을 뛰어난 연기로 묘사한다. 이야기 자체는 신선함이 떨어지나 독특한 악녀 말레피센트를 연기하는 안젤리나 졸리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은 있다. 17일 개봉.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박나래, 코미디 쇼 '스탠드업' MC 확정...11월 첫방

주말 밤을 더욱 핫하게 만들 줄 '스탠드업' 쇼가 시작된다.

오는 11월 KBS 2TV에서 파일럿 예능 2부작 '스탠드업'을 선보인다. '스탠드업'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본격 스탠드업 코미디쇼로 웃음부터 감동까지 깊은 의미와 풍자가 담긴 어른들의 코미디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해 반가움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탠드업 코미디는 무대에서 재치 있는 말로 관객과 소통하며 웃음을 선사하는 희극으로, 그동안 유병재의 '블랙코미디', 박나래의 '농염주의보'를 비롯해 많은 개그맨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안방극장에 새로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스탠드업'은 오는 11월 방송 예정이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